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바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 맨 상봉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둘러보니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보이더라 이거야. 전체를 볼 때하고 조그만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야. 전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구,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 서가 둘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거야.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는 데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선 애길 하고 쓴다 해도 그거는 헛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經)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여북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우정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 되나?' 모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 되나?' 이러면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탈을 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일러 드려도 놓지 못하고 놨다 하더라도 또 재차 생각을 할 때는 '아이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뛸 때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구, 이렇게 놨는데도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놔야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짜부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살게 돼서 괜찮고 아, 이건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왜 놓는데도, 그렇게 맡기는데도 안 되느냐. 주인공, 살려 주시오.' 이러면 오히려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거죠. 해 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거야. 해 달라긴 누구더러 해 달랍니까? 내 마음이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더러 해 달라 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목마른데 어느 누구가 물을 "먹지 마라." 하는 사람 있습디까?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마음을 내서 육체를 움죽거리게 하고, 발을 떼어 놓게 하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갖추어져 있는데…,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하기 이전에. 목말라서 물 마시는데 누구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구족합니까, 이게. 여여하고 말입니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스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왜 어려워서 "나는 못 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해 보지도 않고 느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이 앞서서, 나라는 조건이 앞서서, 애착이 앞서서 말입니다.

요새는 값싼 사랑들을 하기 때문에 울고 짜고 모두 그러는데 값싼 사랑을 해서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겁니다. 한 눈물을 흘릴 때도 한 방울의 눈물이 온 바다를 이룰 수 있고, 온 바다를 한 눈물방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우주 천지에서 여러분한테 열쇠를 맡길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냐? 그런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 보십시오. 오늘은 질문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자1(남)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지녀오던 꿈 또는 포부, 장부로서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법을 접하면서 전부 좀 우습게 여겨지게 되고 물질계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뇌를 좀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버린다면 이런 그 물질 취득에 관한 집착념….

큰스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된 일상생활이 바로 참선이자 길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병 껍데기와 같이 깨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 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이 몸뚱이가. 그러니 그 모두를, 일체 만법을 거기에 맡겨라. 아까 얘기했죠? 내 내면세계가 용광로라면 거기에 맡겨 놓는 작업만 한다면 스스로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올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알고 모르는 건 스스로서 자기가 알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 알 양으로 너무 노력을 하고 놓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 이 몸도 공해서 이것도 놓고
>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는데
> 자꾸 짊어질 게 뭐 있겠느냐.

질문자1(남)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심 이런 것들이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가령 불법이 이렇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까?

큰스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거는 물을 먹으면서도 함이 없이 먹었습니다. 먹은 사이가 없이 먹었고 말을 했어도 하는 사이가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남에게 이런 물건을 (손수건을 들어 보이시며) 하나 줬더라도 내가 줬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주고 갈 뿐이고 걸어갈 뿐입니다. 살 뿐입니다. 그렇게요. 그냥 주면 줬지 자기가 줬다는 생각은 없어야 하겠죠? 왜냐? 자기도 공(空)했으니까.

내가 어저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뽀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탁 들어오더니 "아빠!" 그러거든. 그러니깐 아내를 비켜 놓곤 어린애를 번쩍 안아서 "그래, 아빠다." 하고선 "어디 가서 놀다 왔니?" 하고선 말을 하는데 저 안에서 말입니다, "아범아!" 그러고 또 부르거든요. 어린애를 탁 내려놓고 또 어머니한테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진 않았죠? 하나는 남편이 됐었고, 하나는 아버지가 됐었고, 하나는 아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공(空)했다는 얘깁니다. 모두 일체 사는 게 공했어요. 찰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그릇이에요, 공한 그릇. 그러니 여러분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당신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라. 그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닌 한마음의 도리로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면서 놓아라, 안 놓아라 하는 이런 것도 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전체 놓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자주자주 나오시면서 여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도 거름 삼아 들으시고요.

질문자2(남) 제가 아버님의 상을 치르고 산소에 모시고 와서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님께서 수행 중에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엘 자주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덤을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설법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사후의 세계 50%를 알 때에 보다 높은 산의 위치에 올라가서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귀신을 의미한다면 사후의 세계를, 무덤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저희 중생들에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대부분의 자손들이 부모를 산소에 모실 때 아버님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산소를 잘못 건드렸을 때 그 자손에게 어떤 해가 미친다는,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묘지는 그 산의 산수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둥글게 묘지를 댔죠? 그래서 거기다가 부모를 모시고 본 사람은 누구며 보여 준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전 이후를 다 합쳐서 본 사람은 지금 산 사람이고, 보여 준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가서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후가 한데 합쳐진 바로 원도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천상천하가 다 한데 합쳐서 뭉쳐진 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컵을 들으시고) 산소라면 여기도 우주개공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거나 이거나,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본 놈도 둘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묘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원심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구요.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둘이 아닙니다. 껍데기 병만 깨졌을 뿐이지 그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물이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럴 뿐이에요. 얼음이라고 이름만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도 죽었으니 송장이라고 할 뿐, 그것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듯.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천지가 한데 계합이 된,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뭉쳐 놓은 게 있고 하니 그게 둘이 아닌 까닭에, 삼심(三心)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전체가 한데 합쳐진….

우리가 이 도리를 어떤 때는 부처님의 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도량은 어디고 다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뚱그렇게 그냥 그려 놓고는 말았더라. 어떤 사람은 뚱그렇게 그려 놓고는 침 한번 뱉는데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점 하나 찍어 놓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묵묵히 있었던 분도 있었죠. 어떤 분은 송장을 타고 빙글빙글 서너 바퀴를 돌다가 그냥 훌쩍 나갔고요. 그러니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는 없으니 그대로 그런 것이구요.

아까 끄트머리에 그랬죠. 우리가 그 마음이 채워지면 스스로 알 것이니까 본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 사람, 묘지가 한데 합쳐진 것도 사람이 이렇게 모아 놨고요. 마음이 한데, 이전 이후가 다 한데 모아진 셈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아시면은 원심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놓고요.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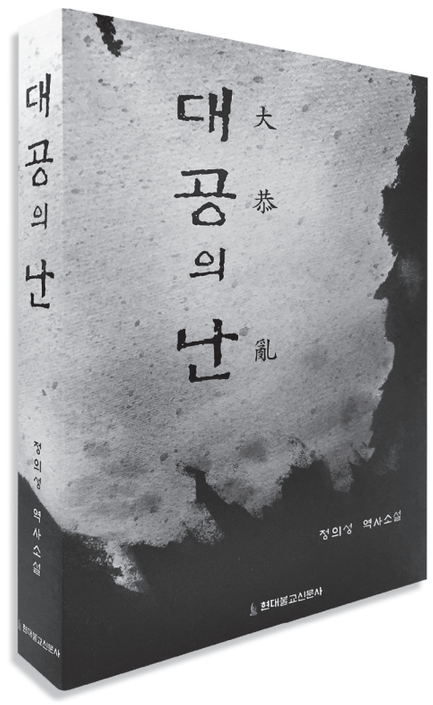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